

김밥과 함께 나누는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 한노보연 부산 일터읽기모임을 소개합니다

최치원 회원

우연한 시작, 계속되는 만남

“일터가 정말 좋아요. 일터읽기모임 만들면 안 될까요?”

부산 회원모임에서 한 회원이 던진 이 한마디가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 에너지만큼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일터를 성실히 읽지 않고 있던 나는 궁금증이 생겼다. ‘대체 어떤 점 때문에 저렇게 느끼는 걸까?’ 나는 그 후로 꾸준히 부산 상임활동가에게 일터읽기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초 제안자는 노동조합 활동이 바빠져 참여하지 못했고, 일터를 거의 읽지 않던 1년 차 신입회원이었던 내가 이 모임의 열혈 참여자가 되었다.

우리 모임의 작은 규칙들

일터읽기모임의 규칙은 단순하다.

- ① 전월(前月)호의 모든 코너를 읽어온다(11월에 모임을 하면 10월호 일터로 진행한다)
- ② 특집은 주되게 구성한 부분이니 열심히 읽는다
- ③ 각자 가장 좋았던 코너를 하나씩 공유한다

‘일터’ 자체를 읽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그리고 모두가 소감을 원활하게 나누기 위해 전체 코너를 다 읽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다들 이 원칙을 열심히 준수하고 있고, 덕분에 평소 관심 없던 내용도 열심히 읽어보고 있다.

그리고 위 3가지 규칙 외에도 어쩌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방식이 하나 있다. 바로 상임활동가가 참여해 각 코너의 취지나 맥락을 부연해 설명해주는 것이다. “이 글은

사실 이런 배경에서 나왔어요”, “이 필자는 현장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예요” 같은 이야기들이 글에 입체감을 더한다. 마치 영화 비하인드 클립을 보는 느낌이랄까.

함께 읽기의 힘

일터는 기본적으로 특집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알아보자 LAW동건강’, ‘현장의 목소리’, ‘젠더 +노동+건강 ON’ 등 고정 코너들이 있다(다만 내년에 파트 구성이 조금 개편된다고 한다.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보자). 회원들은 노동안전보건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젠더, 노동시간, 이주노동 등 세부적인 관심사는 저마다 다르다. 게다가 다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 보니 일터 중에서도 관심 있는 내용만 읽거나, 아예 하나도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알면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모임 날짜를 정하니 달라졌다. 우선 책자 전체를 읽어보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생각하다보니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된다. 각자 관심사와 전문분야가 다르기에, 모임이 시작되고 나면 혼자 읽는 것보다 적어도 몇 배 이상 유익한 대화가 오간다.

10월호, 과로사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들

2025년 10월호 특집은 ‘제11회 일본 과로사 방지학회’였다. 나는 알찬 대화를 좋아하는데, 특히나 남들의 인사이트와 경험이 집약되어 있는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즐겁다. 그런 점에서 학회 발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10월 특집호와 그에 대한 모임이 아주 즐거웠다.

특집 초반에는 일본에서 「과로사 등 방지 대책 추진법」 제정 당시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과로사가 여전히 줄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그 이유에 대해 필자는 과로사 유족의 말을 인용하여 장시간 노동환경이나 직장 내 강압적 위계구조, 특히 회사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상임활동가는 오랜 활동 경험을 나누며 말했다. “법 제정이 다가 아니예요. 계속되는 ‘현장의 힘’이 중요합니다.” 간단하지만 묵직한 인사이트였다.

한 회원은 ‘알아보자 LAW동건강’의 ‘당신의 빨간 날은 안녕한가요?’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빨간 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된 것이 불과 5년 전이라는 점, 심지어 이마저도 단체협약으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점,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들은 임

금이 보장되지 않아 공휴일이 무급·비번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돌봄 공백 때문에 노인들이 며칠씩 방치되는 상황. 한숨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KT 구조조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코너가 인상적이었다. 마침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건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고, 현재 기술자들이 영업직으로 집단 전보되는 상황이, 20여 년 전 명예퇴직 거부자들이 ‘상품판매전담팀’으로 배정되었던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기업의 구조조정 수법도 그렇다.

9월호 모임이긴 하나, 한 회원은 ‘알아보자 LAW동건강’의 ‘운수 좋은 날’ 글을 읽고 눈물이 났다고 했다. 산재를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받는데, 이걸 우호적으로 적어주는 사업장을 만나는 게 운이 좋아야 일어나는 일이라니, 제목 ‘운수 좋은 날’과 내용이 겹쳐지면서 눈물이 났다고 했다. 산재 노동자가 제대로 산재를 보상받으려면 운을 기대해야 하는 현실에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다시 찾은 읽는 즐거움

솔직히 고백하자면, 일하면서 뭔가 읽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다. 핑계일지도 모르지만 여가 시간에 책을 읽으려니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유튜브나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일터 읽기모임이 생기니 달라졌다. 모임에 가려면 읽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읽게 되었다.

모임 당일 부랴부랴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오히려 기억이 생생해서 좋기도 하다. 매달 저녁에 모여 앉아 김밥을 먹으며 지식을 나누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었고 다시금 뭔가 활력이 생긴 느낌이다.

다른 지역 회원들께

다른 지역에도 일터읽기모임을 만들어보시길 권하고 싶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면 우려했던 것보다 부담은 적고 보람은 크다. 한 달에 딱 한 번 모여서 김밥 먹으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기. 그게 전부다.

완벽하게 읽지 않아도, 매달 참여하지 못해도 괜찮다. 함께 읽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자서는 놓쳤을 이야기들을 만나게 된다. ‘운수 좋은 날’ 같은 제목의 의미를, KT 구조조정의 역사성을, 과로사 방지법 10년의 의미를 함께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쌓여 우리는 조금씩 달라진다. 